

명량대첩축제 최첨단 해상전투 재현

18~20일 사흘간 울돌목 일원서
역사·문화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
공군 에어쇼·해군 해상 퍼레이드

2024 명량대첩축제가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3일간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명량대첩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민초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기적의 대승, 명량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호국 역사문화축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제는 진도 녹진무대를 주무대로 명량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축제는 첫날, 약무호남제례를 시작으로 해남과 진도 군민들이 깃발을 들고 진도대교를 건너 출정식에 참여하는 출정 퍼레이드에 이은 개막식과 해상전투 재현이 이어진다.

특히 명량대첩축제의 백미인 해상전투 재현은 LED 대북공연, 비전 플래그, 스크린-X 등 최첨단 멀티미디어 융복합 기술을 동원, 명량해전을 생생하게 재현해 위대한 역사 속 하나 된 호남을 표현할 예정이다. 해남무대에서는 이원 생중계를 통해 개막식과 해전재현, 불꽃쇼, 축하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축제기간 중 해남에서는 우수영 명량무대와 성문광장 등지에서 전국 치어리딩 대회를 비롯하여

K-POP커버댄스, 수군재건 랜덤플레이, 버블, 저글링쇼 등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또한 대규모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하여 수문장 교대식과 명량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포토존이 준비된다.

울돌목 일원에서는 19일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18-20일 해군·해경 해상 퍼레이드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구) 전서관 테라스에서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먹었던 밥상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순신 장군과 민초들이 함께 만든 승전의 역사를 다시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축제에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하여 선조들의 기백과 정신을 느끼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삼학동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 현장 모습. <목포시 제공>

목포시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 큰 호응

매일 둘째·넷째주 금요일 운영

목포시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 2회(매일 둘째주·넷째주 금요일)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 상담실은 복지 정보에 취약하고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이동 상담실은 지금까지 총 437건의 상담 및 서비스가 이뤄졌고 지난 9

월까지 392건을 지원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동 상담실은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각 가구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이동 상담실 운영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 소안 횡간마을 LPG 시설 구축 공급 시작



기존 연료에 비해 40% 이상의 연료비 절감과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연료 사용 환경이 마련됐다.

군은 현재 금당 울포, 청산 모서·모동, 보길 예

작, 생일 덕우에 LPG 시설을 구축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6년까지 청산 여서, 군의 사후도에 LPG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팔금면에 중장기 임대형 '퍼플 바나나 농장' 개소

6006㎡ 규모 첨단 스마트 온실
"인구 유입 정책 모범사례 될 것"



박우량(가운데) 신안군수가 지난 9일 팔금면 퍼플 바나나 농장을 찾아 청장년층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고 청장년층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중장기 임대농장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퍼플 바나나 농장은 신안군 인구 유입 정책 중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

다"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조례 제정 등 청장년층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은 팔금면에서 퍼플 바나나 농장 개소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문을 연 퍼플 바나나 농장은 총 15억 5000여만 원 사업비가 투입돼 복합환경에너지시스템과 난방 시설, 자동 양액설비 등을 갖춘 6006㎡ 규모의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로 지어졌다.

퍼플 바나나 농장은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바나나 재배생산과 유통 마케팅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안섬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신안섬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고품질 바나나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부터 우량묘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 생산 기술 등 재배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바나나 공동 브랜드와 가공상품 개발로 바나나를 활용한 6차 산업화의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퍼플 바나나 농장은 청년농업인들 대상의 단기 임차 운영방식의 한계를 보완

무안군, 내달 1~3일 세계음악극 페스티벌

무안군이 11월 1일부터 사흘간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2024 세계음악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무안 출신 국악 '강용환'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통예술 창극의 대중화·세계화를 무안을 창극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중형 창작극인 개막공연 '미래를 위한 기억',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와 연희팀의 협업 공연, MZ세대 신진예술인(단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작하

는 예술가들'의 8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해외초청공연 '중국 경극', 몽골 전통음악극, 스페인 플라멩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폐막공연 '보통사람들' 등 다양한 음악극이 열린다.

국악 체험, 악기 배우기, 세계 문화 체험, 세계 음식 푸드트럭, 플리마켓(플리마켓+프리마켓) 등도 펼쳐진다.

김산 무안군수는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음악극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진도군, 쌀 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20억 투입

25일까지 읍·면사무서 신청

진도군이 전년 대비 10.3% 하락한 쌀 가격에 따른 쌀 생산농가의 불안 심리 확산을 막고, 농가 소득 보전과 쌀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군비 20억원을 투입해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을 지원한다.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 지역내 주소지를 둔 2024년산 벼 재배농가(간적

지 벼 재배 포함)이다. 예산 범위내에서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단가(ha당 약 35만6000원)를 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가의 소득과 쌀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해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쌀 수급안정과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탄탄한 쌀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